

만 2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추가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부모의 자녀관과 부부특성을 중심으로

정 영 혜¹⁾

김 현 주²⁾

정 소 회³⁾

인하대학교 아동복지전공

(재)한국건강가정진흥원

본 연구는 만 2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추가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부모의 자녀관과 부부특성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 연구 2010년(3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총 1,366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교차분석, t-test,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패널 아동의 출생순위가 셋째 이상보다 첫째와 둘째일 경우, 아동 성별이 남아보다 여아일 경우, 그리고 부모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부의 정서적인 자녀가치 수준이 높을수록, 모의 결혼만족 정도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추가 출산을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추가 출산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자녀가치관과 부부특성 등 개인·심리적인 요인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실증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추가 출산계획, 부모의 자녀관, 부부특성, 한국아동패널

1) 인하대학교 아동복지전공 석사

2) 교신저자 : (재)한국건강가정진흥원 (E-mail : guseb85@naver.com)

3) (재)한국건강가정진흥원 (E-mail : lion55@familynet.or.kr)

I. 서론

우리나라는 1983년에 2명을 웃돌던 합계출산율이 빠르게 하락하여 2005년에는 1.08명까지 내려가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2010년에는 혼인건수와 출산율이 조금씩 회복되어 2012년에 초저출산 국가에 이르는 기준선인 1.30명(통계청, 2012)에 겨우 도달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OECD(2010)의 평균 합계출산율인 1.74명에 미치지 못해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으며, 인구가 장기간 일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기준인 2.1명에 비해 턱없이 낮다. 선진국의 경우 고출산국에서 저출산국에 이르기까지 100여년의 기간이 걸린 반면, 우리나라는 불과 25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인구전환이 이루어졌다(김승권, 김민자, 2003). 이러한 저출산 현상은 경제성장률 저하의 요인이 될 수 있으며, 부양 부담 증가로 인한 청년층과 노년층간의 세대갈등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동아일보, 2012).

보건복지부(2012)에 의하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중 중장기 플랜인 새싹플랜(2006~2010년)이 아이사랑플랜(2009~2012년), 새로마지플랜(2011~2015년)으로 지속 발전하면서 예산의 규모가 증가하였고, 양육수당 도입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설립, 다양한 수요자에 맞는 서비스 제공 확대 등 보육지원이 더욱 강화되었다. 특히 취약계층에만 지원하던 정부의 양육수당 및 보육료 지원, 무상교육(누리과정)을 전 계층에 확대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자녀의 교육 및 양육비 부담으로 인한 출산 기피 현상은 이제 특정 집단에만 해당되는 일

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근로기준법(법제처, 2012)에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및 탄력적 근무시간제도, 유급수유시간 제공 등을 도입한 정책들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을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뿐 아니라 다각적인 측면에서 파악하고, 저출산 탈피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저출산 현상이 가치관의 변화 및 사회문화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임을 반증한다.

오늘날 더 이상 자녀가 부모의 노후를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두어야 할 동기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출산과 양육의 기쁨보다는 개인의 직업적 성취나 경제적 안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등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가치관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이에 결혼 후 시기적인 차이는 있을지라도 한 명의 자녀까지는 보편적으로 출산하지만 남녀의 초혼 및 초산 연령의 고령화와 재정적 부담의 가중으로 출산을 기피하고, 둘째 자녀부터는 더 계획적인 출산을 하는 경향(김정석, 2007; Kohler, 2001)이 출산을 저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Mitchell과 Gray(2007)는 출산계획이 반드시 출산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으나 실제 출산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실제 자녀 출산에는 부모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특성 및 가치관 요인이 중요한데, 그동안 출산력과 관련된 연구들에서는 인구·경제학적 측면의 거시적 관점의 연구만 장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미시적인 관점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부모의 가치관, 부부특성과 같은 개인·

심리적 측면의 미시적 관점을 포괄하여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사회인구학적 측면에서 저출산과 관련된 선행연구로 자녀의 성 선호, 한자녀 출산, 가구의 소득수준 및 자녀 양육비 등이 있다. 첫째 자녀의 성별이 둘째 자녀 출산계획에 영향을 주었다는 연구(김정석, 2007; 이성용, 2003)가 있는 반면, 기출산 자녀의 성별은 영향이 없다(임현주, 이대균, 최항준, 2011)는 연구도 있다. 또한 초혼연령의 상승 및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에 따른 경제활동 증가(민현주, 김은지, 2011; 손승영, 2005; 은기수, 2001)와 소득의 불안정, 자녀양육비의 부담 등과 같은 경제적 요인(도미향, 2006; 민희철, 2008; 하준경, 2012)도 출산을 감소에 영향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여성가족부(2005)의 가족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양육비에 대한 부담이 높을수록 추가 출산계획을 하지 않는다고 나타났다. 그러나 김두섭(2007)은 소득이 높으면 자녀의 경제적 효용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소득과 출산력은 부적 관계를 갖는다고 하였고, 최근에는 가구소득과 자녀양육비가 추가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박수미, 2008; 이정원, 2009; 전나리, 조복희, 2012)도 있다.

이처럼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아동의 성별과 소득수준, 자녀양육비에 관한 상반된 결과가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확인적 가설을 세우기보다 아동의 성별과 소득수준과 자녀양육비를 추가 출산계획에 주요 변인으로 고려하여 추가출산계획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부모의 자녀 가치관과 부부특성과 같은 부모의 개인·심리적 변인도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고려되고 있다. 부부의 결혼관 및 자녀에 따라 부부는 자발적으로 무자녀를 결정하기도 하며(공미혜, 이수연, 2012), 부모의 자녀가치가 둘째아 출산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박찬화, 2012; 이정원, 2009). 자녀가치란 부모가 자녀를 출산함으로써 얻는 양육스트레스 등과 같은 심리·사회·경제적 비용과 노후보장 등 이익을 의미하며(Hoffman & Hoffman, 1973), 이러한 부모의 자녀가치는 출산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한다. 김은정 등(2010)은 현대사회에서 자녀에 대한 도구적 가치를 상실함에 따라 정서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인식 형성이 출산을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특히 차승은(2008)은 어머니가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를 높게 지각할수록 추가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마미정(2007)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정서적 가치가 추가 출산계획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부모의 자녀가치가 추가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보고한 연구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자녀가치를 정서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로 분리하여, 각각의 변인이 추가 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부모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자녀의 출산여부와 자녀수를 계획하기도 하는데, 김정석(2007)은 한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여성들의 경우 현재 아동의 수보다 이상적으로 여기는 자녀수가 더 많을 때 추가 출산을 계획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천혜정(2005)은 현재 자녀의 수보다 이상적으로 여기는 자녀수가 더 많을

지라도 추가 출산계획을 포기하는 경우도 상당하다고 밝혔다.

자녀출산은 부부중심의 가족에서 자녀중심 가족으로의 의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데, Bigner(2005: 박성연 등 2007에서 재인용)는 부부가 출산 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부부관계에 많은 위기를 경험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부부로서의 역할과 더불어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또한 추가 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박찬화(2012)는 결혼만족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추가 출산을 계획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고, 강유진(2007)은 부부간의 만족도가 인구학적 요인과 자녀가치관의 매개변수로서 직간접적으로 추가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부부갈등에 대한 평가도 상반되게 나타나는데, 추가 출산계획이 있는 어머니의 경우 그렇지 않은 어머니보다 부부갈등이 적다는 연구결과(송영주, 이주옥, 김춘경, 2011)와 함께 부부갈등이 추가 출산 계획을 포함하는 기대 자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김미정, 정계숙, 박희경, 2011)도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주로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아버지 요인을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의 연구들은 저출산 원인에 대한 내용을 경제인구학적 측면으로만 다루고 있으며, 추가 출산계획과 관련되어 개인의 심리사회적인 측면은 배제되어 복합적으로 탐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2008년 출생한 신생아 가구를 대표할 수 있는 「한국아동패널(PSKC: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2010」 자료를 사용하여, 가

구 및 부모의 특성에 따라 만 2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추가 출산계획이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추가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탐색하여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만 2세 자녀를 둔 가구 및 부모의 특성에 따라 어머니의 추가 출산계획은 차이가 있는가?

1-1)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어머니의 추가 출산계획은 차이가 있는가?

1-2) 부모의 자녀관과 부부특성에 따라 어머니의 추가 출산계획은 차이가 있는가?

2. 만 2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추가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PSKC: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2010」 자료를 사용한 것으로, 이는 층화다단계 표본 추출법으로 이용하여 전국 6개 권역에서 2008년 4~7월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 중 조사 참여 의사가 있는 2,078가구를 대상으로 아동이 만 2세가 된 2010년(3차년도)에 수집된 자료이다(김은설 등, 2012). 2010년에 조사에 참여한 1,802가구 중 추가 출산에 대해 명확한 계획이 없는 경우, 즉 ‘잘 모르겠음’과 무응답 및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한 최종 1,366가구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본 자료의 아동은 남아가 699명, 여아가 667명으로 남아가 조금 더 많았고, 아동의 출생순위는 첫째 46.6%, 둘째 41.7%, 셋째 이상 11.7% 순이었다. 거주 지역규모는 중소도시 40.3%, 대도시 38.7%, 읍면지역 20.9%였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200만원대와 300만원대가 가장 많았고, 자녀에 대한 월평균 지출액은 30만원 이하와 31-60만원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각각 평균 3,684,300원, 491,900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가 비취업 상태인 경우는 66.3%로 과반수 이상이었다. 부모의 연령은 모두 30대가 약 80%로, 아버지는 평균 35.27세, 어머니는 평균 32.78세로 나타났다. 부모의 최종학력은 4년제 대졸(부 39.5%, 모 40.8%), 2·3년제 대졸(부 25.3%, 모 25.7%), 고졸(부 30.0%, 모 38.0%) 순이었다(표 1 참조).

2. 측정도구

각 독립변인의 측정 영역 및 한국아동패널의 어머니 예비조사에 대한 문항 내적합치도(이정림 등, 2011)는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또한 한국아동패널 조사 시 사용한 도구들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한국아동패널 보고서(이정림 등, 2011)를 참고하여 기술하였다.

추가 출산계획 여부

추가 출산계획은 현재 자녀 이외에 자녀를 더 출산할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으로 ‘패널 자녀의 출산 이후 자녀를 더

표 1. 대상 가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인	n	%
아동 성별	남	699 51.2
	여	667 48.8
아동 출생순위	첫째	637 46.6
	둘째	569 41.7
	셋째 이상	160 11.7
거주 지역규모	대도시	529 38.7
	중소도시	551 40.3
	읍면지역	286 20.9
월평균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139 10.2
	200-299만원	384 28.1
	300-399만원	359 26.3
	400-499만원	212 15.5
	500만원 이상	272 19.9
자녀에 대한 월평균 지출	30만원 이하	608 44.5
	31-60만원	452 33.1
	61-90만원	175 12.8
	91-120만원	65 4.8
	121만원 이상	66 4.8
모 취업여부	취업	460 33.7
	비취업	906 66.3
부 연령	20-29세	93 6.8
	30-39세	1,087 79.9
	40세 이상	180 13.2
모 연령	20-29세	226 16.6
	30-39세	1,082 79.6
	40세 이상	51 3.8
부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	319 30.0
	전문대(2·3년제) 졸	227 25.3
	대학교(4년제) 졸	601 39.5
	대학원(석박사) 졸	138 5.1
모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	355 38.0
	전문대(2·3년제) 졸	325 25.7
	대학교(4년제) 졸	516 40.8
	대학원(석박사) 졸	70 5.5
전체	1,366	100.0

표 2. 측정 영역 및 분석 변인

영역 및 변인	변수 값
사회인구학적 특성	
아동 성별	남/여
아동 출생순위	첫째/둘째/셋째 이상
월평균 가구소득	오픈 값
자녀에 대한 월평균 지출	오픈 값
문항수(Cronbach α)	
부모의 자녀관	
자녀가치	7(.80)
도구적 자녀가치	3
정서적 자녀가치	4
이상적인 자녀수	-
부부특성	
결혼만족도	4(.93)
부부갈등	8(.90)

낳으실 계획입니까?’에 대한 질문에 ‘낳겠음’, ‘낳지 않겠음’, ‘잘 모르겠음’으로 응답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잘 모르겠음’과 무응답을 제외하고 ‘계획 있음=0’, ‘계획 없음=1’을 준거변수로 사용하였다.

부모의 자녀관

자녀가치. 자녀가치는 부모됨의 태도를 보여주며 부모 역할을 수행하는 동기를 의미한다. 개념적으로 정서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의 두 요인으로 구분되는데, 한국아동패널 연구에서는 이삼식 등(2005)에서 사용한 도구를 5점 척도로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자녀가치에서 정서적 가치는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 등의 3문항, 도구적 가

치는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등의 4문항으로 총 7문항을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조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가치를 높게 생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적인 자녀수. 이상적인 자녀수는 몇 명의 자녀를 갖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질문으로 실제 계획하고 있는 자녀수가 아닌, 개인적으로 추구하고 원하는 자녀의 규모로 ‘일반적으로 자녀는 몇 명을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문항에 ‘무자녀’에서 ‘5명 이상’ 중에 응답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삼식 등(2005)의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부모 모두에게 조사하였다.

부모의 부부특성

결혼만족도. 결혼만족도는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정도를 의미하며, 한국아동패널 연구에서는 Chung(2004)의 RKMSS(Revised-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를 5점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배우자로서의 아내 또는 남편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등의 총 4문항을 부모에게 각각 조사하였다.

부부갈등. 부부갈등은 결혼관계의 고유한 부분으로 갈등을 잘 다루면 결혼의 친밀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의미한다. 한국아동패널 연구에서는 Markman, Stanley & Blumberg(2001)의 ‘그렇다’, ‘아니다’로 응답할 수 있는 보기를 5점 척도로 수정하였다. ‘사소한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변해 서로 욕설하고

비난하며, 과거의 잘못을 다시 들추면서 싸운다.’ 등의 총 8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갈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3. 자료 분석

「한국아동패널 2010」 자료는 2008년 전국 6개 권역의 산부인과에서 표집된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2010년에 면접조사와 우편조사(부모 질문지)를 통하여 수집되었다(김은설 등, 2012). 분석은 SPSS 18.0을 사용하여 통계처리하였으며 연구문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첫째, 만 2세 자녀를 둔 부모의 특성에 따라 어머니의 추가 출산계획은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증 및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둘째, 어머니의 추가 출산계획 여부 집단 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만 2세 자녀를 둔 가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부모의 자녀관과 부부특성에 따른 어머니의 추가 출산계획의 차이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어머니의 추가 출산계획의 차이

만 2세 자녀를 둔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어머니의 추가 출산계획 여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아동의 성별($\chi^2=5.727$, $p<.05$)과 출생순위($\chi^2=384.899$, $p<.001$), 자녀에

대한 지출($\chi^2=35.579$, $p<.00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표 3 참조). 먼저 아동의 성별에서는 추가 출산계획이 있는 집단 중 여아가 53.3%로 남아의 46.7%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즉 아동이 남아일 때보다 여아일 때 추가출산을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출생순위는 패널 아동이 첫째인 경우는 82.9%, 둘째는 16.2%, 셋째 이상은 0.9%로 추가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어머니의 대부분은 패널 자녀가 첫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출산한 자녀가 둘째 이상일수록 추가 출산을 계획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아동의 출생순위가 추가 출산계획에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자녀에 대한 월평균 지출에서는 출산을 계획하지 않은 집단 중 80.3%, 계획하는 집단 중 72.5%가 60만원 이하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에게 더 적게 지출할수록 추가 출산을 계획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부모의 자녀관 및 부부특성에 따른 어머니의 추가 출산계획의 차이

만 2세 자녀를 둔 부모의 자녀관과 부부특성에 따른 어머니의 추가 출산계획 여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부모의 자녀관에서는 부모의 정서적 자녀가치(부 $t=4.685$, $p<.001$, 모 $t=4.098$, $p<.001$)와 모의 도구적 자녀가치($t=1.987$, $p<.05$)가, 부부특성에서는 부모의 결혼만족도(부 $t=2.072$, $p<.05$, 모 $t=5.644$, $p<.001$)와 부부갈등(부 $t=-2.602$, $p<.05$, 모 $t=-4.615$, $p<.001$)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표 4 참조).

즉 부모가 스스로 부모됨의 가치와 자녀에

표 3. 만 2세 자녀를 둔 가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어머니의 추가 출산계획 여부

영역 및 변인		n(%)			$\chi^2(df)$
		계획 있음	계획 없음	전체	
아동 성별	남	219(46.7)	480(53.5)	699(100.0)	5.727(1)*
	여	250(53.3)	417(46.5)	667(100.0)	
아동 출생순위	첫째	389(82.9)	248(27.6)	637(100.0)	384.899(2)***
	둘째	76(16.2)	493(55.0)	569(100.0)	
	셋째 이상	4(0.9)	156(17.4)	160(100.0)	
월평균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49(10.4)	90(10.0)	139(100.0)	4.537(4)
	200-299만원	142(30.3)	242(27.0)	384(100.0)	
	300-399만원	110(23.5)	249(27.8)	359(100.0)	
	400-499만원	79(16.8)	133(14.8)	212(100.0)	
	500만원 이상	89(19.0)	183(20.4)	272(100.0)	
자녀에 대한 월평균 지출	30만원 이하	158(33.7)	450(50.2)	608(100.0)	35.579(4)***
	31-60만원	182(38.8)	270(30.1)	452(100.0)	
	61-90만원	69(14.7)	106(11.8)	175(100.0)	
	91-120만원	29(6.2)	36(4.0)	65(100.0)	
	121만원 이상	31(6.6)	35(3.9)	66(100.0)	
전체		469(100.0)	897(100.0)	1,366(100.0)	

* $p < .05$. *** $p < .001$.

대한 정서적 자녀가치가 높을수록, 모가 자녀를 사회와 결혼에 대한 의무감으로 생각하는 도구적 자녀가치가 높을수록, 부모가 결혼생활에 만족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부모의 부부로서의 갈등수준이 낮을수록 자녀 출산계획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만 2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추가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만 2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추가 출산계획

여부에 독립변인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에 앞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유의한 상관이 있는 변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5 참조). 먼저 아동 성별($r=.07, p<.05$)과 자녀에 대한 월평균 지출($r=.08, p<.01$), 부모의 정서적 자녀가치(부 $r=.13, p<.001$, 모 $r=.11, p<.001$), 모의 도구적 자녀가치($r=.05, p<.05$), 부모의 결혼만족도(부 $r=.06, p<.05$, 모 $r=.15, p<.001$)는 추가 출산계획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패널 자녀가 여아일수록, 자녀에 대한 월평균

표 4. 만 2세 자녀를 둔 부모의 자녀관 및 부부특성에 따른 어머니의 추가 출산계획 여부

영역 및 변인		M(SD)			t
		계획 있음(n=469)	계획 없음(n=897)	전체(N=1,366)	
자녀관	부 정서적 자녀가치	4.54(.51)	4.39(.59)	4.44(.57)	4.685***
	부 도구적 자녀가치	3.34(.79)	3.30(.76)	3.32(.77)	.935
	부 이상적인 자녀수	3.35(.64)	3.37(.72)	3.36(.70)	-.538
	모 정서적 자녀가치	4.39(.55)	4.25(.57)	4.30(.56)	4.098***
	모 도구적 자녀가치	2.97(.73)	2.88(.76)	2.91(.75)	1.987*
	모 이상적인 자녀수	3.51(.68)	3.45(.75)	3.47(.73)	1.274
부부특성	부 결혼만족도	4.26(.69)	4.18(.72)	4.21(.71)	2.072*
	부 부부갈등	2.00(.76)	2.11(.74)	2.07(.75)	-2.602*
	모 결혼만족도	4.01(.70)	3.45(.75)	3.85(.78)	5.644***
	모 부부갈등	1.95(.72)	2.15(.80)	2.08(.78)	-4.615***

* $p < .05$. *** $p < .001$.

지출이 많을수록, 부모의 정서적 자녀가치와 모의 도구적 자녀가치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의 결혼에 대한 만족정도가 높을수록 추가 출산을 계획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아동의 출생순위($r=-.50$, $p<.001$)와 부모의 부부갈등(부 $r=-.07$, $p<.01$, 모 $r=-.12$, $p<.001$)은 추가 출산계획과 부적 상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동의 출생순위가 낮을수록, 부모의 부부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추가 출산을 계획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가정위반 여부를 진단한 결과, 각 변인의 VIF 지수가 10보다 훨씬 작았고(1.01~2.15) 공차(tolerance)가 1에 가까워(.47~.99)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Durbin-Watson 계수를 산출한 결과 모두 2에 근접하고 있어(1.91) 잔차 간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본 자료의 회귀분석을 위한 기본가정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만 2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추가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추가 출산계획 있음(1), 없음(0)의 이항변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인인 추가 출산계획여부는 '계획 있음'과 '계획 없음'과 같이 이분적으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로지스틱 모형을 적용하기에 좋은 조건일 뿐만 아니라, 출산 계획을 하는 어머니에 비해 계획하지 않는 어머니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 또한 승산비(odds ratio)를 활용하기에 적합하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개별 독립변인의 효과는 승산비를 통해 확인하는데, 이는 독립변인(χ_x)이 주어졌을 때 종속변인이 1일 확률을 승산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양

표 5. 만 2세 자녀를 둔 부모의 자녀관 및 부부특성에 따른 어머니의 추가 출산계획 여부

(N=1,366)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1														
2	.07*	1													
3	-.50***	-.02	1												
4	-.02	-.06*	.00	1											
5	.08**	.02	.12***	-.19***	1										
6	.13***	-.04	.02	-.01	.02	1									
7	.03	.04	-.13***	.06*	.02	-.38***	1								
8	-.02	.03	-.28***	.07*	.09**	-.12***	-.18***	1							
9	.06*	.01	.03	-.05	-.02	-.34***	-.14***	-.03	1						
10	-.07**	-.03	-.01	.00	.01	.23***	.05	-.02	.49***	1					
11	.11***	-.04	.02	-.03	.00	-.33***	-.18***	-.10***	-.27***	.22***	1				
12	.05*	-.03	-.09**	.05	.01	-.16***	-.37***	-.10***	-.10***	.09***	-.41***	1			
13	.03	-.01	-.19***	-.03	.07*	-.07*	-.08**	-.30***	.01	.01	-.14***	-.12**	1		
14	.15***	-.03	.07*	-.02	.02	-.17***	-.04	-.00	-.37***	.42***	-.30***	-.13***	.02	1	
15	-.12***	.01	-.06*	.03	-.01	.13***	-.02	.00	.39***	-.60***	.31***	.10***	.01	.62***	1

* $p < .05$. *** $p < .001$.

주: 1. 모 추가 출산계획 여부(1:있음 0:없음) 2. 아동 성별(1:여 0:남) 3. 아동 출생순위 4. 월평균 가구소득 5. 자녀에 대한 월평균 지출 6. 부 정서적 자녀가치 7. 부 도구적 자녀가치 8. 부 이상적인 자녀수 9. 부 결혼만족도 10. 부 부부갈등 11. 모 정서적 자녀가치 12. 모 도구적 자녀가치 13. 모 이상적인 자녀수 14. 모 결혼만족도 15. 모 부부갈등

명희, 2005). 본 연구에서의 승산은 추가 출산 계획이 있는 확률(p)에 대한 추가 출산계획이 없는 확률(1-p)의 비율을 의미한다.

표 6에 제시되어 있듯 추가 출산계획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아동의 출생순위가 첫째일 때와 둘째일 때였으며, 아동 성별과 모의 이상적인 자녀수, 부의 이상적인 자녀수, 부의 정서적 자녀가치, 모의 결혼만족도의 순으로 모두 승산비 증가에 유의하게 기여하였다. 본 모형의 회귀에 의한 분류 정확도는 약 78%이었다.

첫째, 다른 독립변인들의 효과를 통제했을 때 아동의 출생순위가 첫째일 경우 셋째 이상에 비해 어머니가 추가 출산을 계획할 승산은

약 159.720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출산한 자녀가 첫째아일수록 추가 출산계획을 가짐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둘째, 아동의 출생순위가 둘째일 경우 셋째 이상에 비해 추가 출산계획이 있을 승산은 약 11.239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출산한 자녀가 셋째 이상보다는 둘째아일수록 추가 출산계획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아동의 성별에서는 현재 자녀가 남아일수록 추가 출산계획을 가질 승산은 약 1.63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출산한 자녀가 여아인 경우보다 남아일 때 출산계획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모의 이상적인 자녀수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추가 출산을 계획할 승산은 약 1.591배 증가하는 것으로

표 6. 만 2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추가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독립변인	B	S.E.	Wald	Exp(B)	Sig.	Exp(B) of 95% C.I.	
						Lower	Upper
χ_1 아동 성별	.490	.144	11.527	1.632	.001	1.230	2.165
χ_2 아동 출생순위 - 첫째	5.073	.548	85.787	159.720	.000	54.589	467.318
χ_3 (셋째이상 기준) - 둘째	2.419	.539	20.117	11.239	.000	3.904	32.349
χ_4 월평균 가구소득	.000	.000	.757	1.000	.384	.999	1.000
χ_5 자녀에 대한 월평균 지출	.002	.001	3.277	1.002	.070	1.000	1.003
χ_6 부 정서적 자녀가치	.360	.157	5.254	1.433	.022	1.053	1.949
χ_7 부 도구적 자녀가치	.160	.107	2.251	1.174	.133	.952	1.447
χ_8 부 이상적인 자녀수	.407	.115	12.492	1.503	.000	1.199	1.884
χ_9 부 결혼만족도	-.210	.124	2.887	.810	.089	.636	1.033
χ_{10} 부 부부갈등	.008	.121	.005	1.009	.944	.795	1.279
χ_{11} 모 정서적 자녀가치	-.008	.153	.003	.992	.958	.735	1.339
χ_{12} 모 도구적 자녀가치	.176	.112	2.475	1.192	.116	.958	1.483
χ_{13} 모 이상적인 자녀수	.464	.109	18.237	1.591	.000	1.286	1.969
χ_{14} 모 결혼만족도	.358	.128	7.763	1.430	.005	1.112	1.839
χ_{15} 모 부부갈등	-.153	.134	1.305	.858	.253	.661	1.115
Constant	-10.970	1.319	69.129	.000	.000		
$\chi^2(df)$			528.138(15) ^{***}				

*** $p < .001$.

나타나, 모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추가 출산계획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부의 이상적인 자녀수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추가 출산계획이 있을 승산은 약 1.503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추가 출산계획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섯째, 부의 정서적 자녀가치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추가 출산계획을 가질 승산은 약 1.433배인 것으로

나타나, 부가 부모됨을 인생에서 가치 있고 부부관계를 굳건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클수록 추가 출산계획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모의 결혼만족도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추가 출산계획이 있을 승산은 약 1.430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모가 배우자로서의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역할에 만족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추가 출산계획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보다 정확한 추가 출산 계획여부를 설명하기 위하여 만 2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추가 출산계획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인만을 포함하여 구축한 최종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다음과 같다.

$$\log \left[\frac{\text{추가 출산을 계획할 확률}}{\text{추가 출산을 계획하지 않을 확률}} \right] \\ = -11.287 + .470\chi_1 + 4.925\chi_2 + 2.310\chi_3 \\ + .392\chi_6 + .421\chi_8 + .466\chi_{13} + .384\chi_{14}$$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모형이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Hosmer-Lemeshow 적합도를 사용할 수 있다. 전체 표본 집단을 순서대로 일정수로 분할하여 실제 관측수치와 예측수치를 비교하는 분할표에 근거하여 모형이 적합한지를 검증하는 것이다(Peng, Lee & Ingersoll, 2002). 여기서 카이제곱 값은 종속변인의 실제치와 모형에 의한 예측치 간의 일치정도를 나타내는데, 그 값이 작을수록 모형의 적합도는 높다(이학식, 임지훈, 2013). 본 연구에서는 카이제곱 값이 5.717(df=8)이고 비유의적으로 나타나($p = .679$), 모형의 적합도가 수용할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추가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가 출산계획의 부모 개인·심리적인 변인들을 중심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주

요 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만 2세 자녀를 둔 가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부모의 자녀관 및 부부특성에 따른 추가 출산계획여부의 차이에 대해 알아 보았다. 우선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아동의 성별과 출생순위, 자녀에 대한 월평균 지출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성별은 패널 자녀가 남아일 때보다 여아일 때 추가 출산계획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생순위에 따른 차이는 셋째 이상보다는 둘째일 때, 그보다 또 첫째일 때 추가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어머니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에 대한 월평균 지출에 따른 차이는 지출이 적을 경우 추가 출산을 계획하지 않으며, 특히 30만원 이하와 30~60만원 이하의 집단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나리와 조복희(2012)의 연구에서는 추가 출산계획에 자녀양육비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서문희, 최윤경, 신윤정, 이세원(2010)의 연구에서 자녀가 많은 가정이 적은 가정에 비해 소득이 낮고 지출 수준은 높아, 소득 대비 지출 비율이 증가하였다는 결과에 비추어보았을 때 부모의 맞벌이 여부 및 가구의 월평균 소득과 현재 자녀수 등의 모든 변인을 포함하여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 자료를 기초 분석한 보고서(이정림 등, 2011)에서 추가로 출산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64.8%의 어머니 중 39.5%가 ‘자녀 양육비용과 교육비용 때문에’라고 응답한 결과는 지출의 적고 많음의

차이보다는 소득대비나 체감비용 지출 등의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모의 자녀관 및 부부특성에 따른 추가 출산계획여부의 차이에 대해 알아본 결과, 부모의 정서적 자녀가치와 모의 도구적 자녀가치, 부모의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부모의 정서적 자녀가치가 높을수록, 즉 부모가 자녀를 가치 있게 생각하는 정도가 높은 경우 어머니의 추가 출산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출산과 자녀양육을 통해 부모 역할에 이미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경험을 해본 요인이 중요하다고 밝힌 차승은(2008)의 연구와 일맥상통한다. 모의 도구적 자녀가치에 따른 차이는 김승권, 김유경, 조애저, 김혜련, 임성은(2009)의 보고에서 ‘자녀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응답이 55.9%라고 밝힌 내용으로 미루어볼 때, 사회적인 인식과 결혼한 여성으로서의 도구적 역할이 주요한 의미로 출산에 작용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추가 출산계획여부에 대한 부모의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도남희, 송요현, 정영혜(2011)와 최은영과 이예진(2011)의 결과들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둘째, 만 2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추가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유의한 영향력을 미쳐 최종모형에 포함된 변인은 총 7개로, 아동의 성별, 아동의 출생순위, 부모의 이상적인 자녀수, 부의 정서적 자녀가치, 모의 결혼만족도가 최종 로지스틱 모형에 포함되었다. 이를 승산비에 비추어

본 결과, 추가 출산계획에 가장 큰 설명력이 있는 변인은 아동의 출생순위(첫째 159.720배, 둘째 11.239배)였으며, 영향력이 있다고 나타난 변인 모두 추가 출산계획 승산비 증가에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세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패널 자녀가 셋째 이상일 경우보다 첫째이거나 둘째인 경우가 추가 출산계획을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혼여성의 출산아수별로 추가 출산계획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한 김정석(2007)의 연구와 기혼남성의 추가 출산계획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현재 자녀수를 보고한 전나리와 조복희(2012)의 연구와 일치한다. Kohler(2001)는 결혼 후 첫째 자녀를 출산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하였고, 민현주와 김은지(2011)는 첫째 자녀 이후의 출산을 결정하는 요인에 여성의 취업과 초혼 연령이 복잡하게 얽힌 결과를 보인다고 하였다. 이는 통상적으로 자녀를 2명 이상 낳는다 하더라도 첫째아와 이후 출생아의 간격 차이가 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의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세부적인 후속연구로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동의 성별이 여아보다 남아일 경우 어머니가 추가 출산을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아선호가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김정석, 2007)와 남아선호사상이 약해지고 있어 성 선호에 의한 추가 출산 가능성은 드물다는 연구결과(이성용, 2003)와 일치하고 있다. 이는 현재 패널 자녀를 출산하기 전 부모가 여아를 더 기대했다는 한국아동패널 결과(헤럴드경제, 2011)와 함께 패널 대상 부모들은 남아보다

여아를 더 선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통계청(2012)에 따르면 앞으로 2016년에는 여성인구가 남성인구를 초월하는데 출생성비가 점점 좁혀지는 현상이 일조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남아가 여아보다 양육하는데 힘들고, 노후에 여아가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의식 변화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문제 1의 아동의 성별이 남아인 경우보다 여아일 때 추가 출산 계획 있다는 결과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이는 아직 우리사회에서 남아를 출산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의무감과 여아를 양육하면서 느낀 긍정적인 자녀양육 경험이 혼재되어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들에서도 자녀의 성별이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김정석, 2007)와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결과(임현주 등, 2011)가 혼재되어 있는데, 이는 현대사회의 출산에는 복합적인 요소가 영향을 미친다(이삼식, 최효진, 오영희, 서문희, 박세경, 도세록, 2009)는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다. 즉 출산계획에는 단순히 자녀의 성별 외에 조부모의 기대나 부모의 가치관, 사회경제적인 요인, 정부의 양육지원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추가출산계획에 대한 질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부모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어머니가 추가 출산을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추가 출산을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김정석, 2007; 이형민, 2012)와 맥락을 같이한다. 이는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결혼이나 출산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수가 많다고 보고한 연구들(김나영, 2011; 도미향, 2011)에 비추어 볼 때, 결혼 및 자녀관의 긍정적인 태도가 이상적인 자녀수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 출산계획을 갖고 실제 출산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청소년 시기부터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자녀 가치관과 부모 역할 및 책임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의 제도적인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부의 정서적 자녀가치 정도가 클수록 추가 출산을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첫째 자녀나 부모의 외로움 등의 정서적인 필요성에 의해 둘째 자녀를 출산하고자 한다는 마미정(2007)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즉 아버지가 부모됨을 가치롭게 생각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긍정적인 정서지원을 제공한다고 생각할수록 추가 출산을 계획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성 선호의 변화와 함께 살펴보면, 과거에는 가문의 대를 잇거나 부모를 부양하는 도구적인 의미로서 남아를 선호했다면, 현재에는 자녀의 존재자체에 의미를 두고 정서적 교류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남아에 대한 선호가 감소하고, 여아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삼식 등(2009)의 연구에서는 미혼남성의 정서적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2005년에 조사한 동일 연구(이삼식 등, 2005)와 비교하여 다소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는데, 정서적 자녀가치가 추가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자녀의 정서적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의 감소는 출산을 저하

로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주리(2011)는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감소에 기여하여 자녀 발달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고, 이형민(2012)은 부부가 양육에 공평하게 참여할수록, 사회적 지원이 있을수록, 양육 및 출산 지원제도의 이용 경험정도가 자녀가치관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남편의 양육휴가와 같은 제도적인 지원과 더불어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격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부 스스로 자녀양육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부모의 정서적 자녀가치 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모의 결혼만족 정도가 높을수록 추가 출산을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어머니가 배우자를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버지 역할로서 만족할수록 자녀를 더 출산할 계획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부부만족도가 높을수록 추가 자녀를 희망한다고 보고한 강유진(2007), 정은희, 최슬기, 김미선, 박은경, 정은영(2012)의 연구와 일치한다. 즉 자녀 출산이 더 이상 사회적인 의무감이나 부모로서의 의무감보다는 부모 개인의 상황과 특성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하나의 선택사항이 되었다는 것에 주목해야한다. 그러므로 육아와 양육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육아지원정책과 부부 및 부모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와 가족관계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만 2세 자녀를 둔 어머니

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만 2세 자녀를 양육하는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며, 후속 연구로 이후 조사된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함께 종단적으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자녀가치관과 부모의 결혼만족도가 자녀 출산계획에 주요 요인임이 입증되었지만, 부모 역할로서의 실제적인 현상을 탐색하는 질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결과가 가지는 시사점과 의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추가 출산을 계획함에 있어서 부모의 개인·심리적 특성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며, 결혼 전에 긍정적인 자녀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교육이 제공되어야하며, 부부 간의 역할을 공평하게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인 차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이는 좀 더 미시적인 관점에서의 실증적인 자료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저출산 현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의 기초적인 자료로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유진 (2007). 둘째자녀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자녀가치관 및 가족관계 요인. 한 국지역사회생활과학학회지, 18(4), 639-653.
- 공미혜, 이수연 (2012). 무자녀 기혼여성의 무 자녀 결정경험. 가족과 문화, 24(2), 39-63.
- 김나영 (2011). 미혼남녀의 출산관련 가치관과 이상적인 자녀수의 인과관계. 사회과학연

- 구논충, 26, 5-23.
- 김두섭 (2007). IMF 외환위기와 사회경제적 차별출산력의 변화. *한국인구학*, 30(1), 67-95.
- 김미정, 정계숙, 박희경 (2011). 20-30대 유자녀 모의 심리적·사회적 요인이 기대자녀수에 미치는 영향. *생태유아교육연구*, 10(4), 1-18.
- 김승권, 김민자 (2003). 저출산 대비 인구정책 개발 및 범정부 추진체계 수립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 김유경, 조애저, 김혜련, 임성은 (2009).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은설, 도남희, 왕영희, 송요현, 이예진, 정영혜, 김영원 (2012). *한국아동패널 2012*.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정, 김지연, 이성림, 김태현, 조영태, 이지혜 (2010).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자녀가치와 출산율 관계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정석 (2007). 기혼여성의 출산아수별 추가출산계획. *한국인구학*, 30(2), 97-116.
- 도남희, 송요현, 정영혜 (2011). 만 1세 영아가구의 후속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아동패널 2차년도 자료를 중심으로. KICCE 국제세미나 및 제 2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 도미향 (2006). 저출산 시대 가족복지정책의 현황과 과제. *한국가족복지학*, 11(1), 93-112.
- 도미향 (2011). 대학생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미래결혼과 출산행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6(4), 163-178.
- 동아일보 (2012. 6. 23). 저출산·고령화의 늪... 2040년 2명이 일해 노인 1명 부양해야. <http://news.donga.com/3/all/20120623/47229128/1>에서 2012년 3월 10일 인출.
- 마미정 (2007). 맞벌이 부부의 둘째 자녀 출산 의도와 출산 기피 요인 탐색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민현주, 김은지 (2011). 출산순위별 출산결정요인 분석. *한국사회학*, 45(4), 198-222.
- 민희철 (2008). 임금 및 소득이 출산 간격에 미치는 효과의 분석. *재정학연구*, 1(1), 41-61.
- 박수미 (2008). 둘째 출산 계획의 결정요인과 가족 내 성 형평성. *한국인구학*, 31(1), 55-73.
- 박찬화 (2012). 10개월 이하 영아를 둔 취업모의 양육지원체계, 자녀가치관 및 심리적 안녕감이 둘째아 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21(1), 95-111.
- 법제처 (2012). 근로기준법 2012년 8월 2일 시행.
- 보건복지부 (2012).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5). 서울: 보건복지부.
- 서문희, 최윤경, 신윤정, 이세원 (2010). 영유아 양육비용에 관한 연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손승영 (2005). 저출산·고령화 사회와 가족관계의 변화. *동덕여성연구*, 10, 5-25.
- 송영주, 이주옥, 김춘경 (2011).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른 후속출산계획 관련 심리사회적 요인 탐색. *열린유아교육*, 16(3), 185-

- 206.
- 양명희 (2005). 기초학력 도달 관련 심리적 특성 분석을 위한 로지스틱 모형 적용 연구. *교육평가연구*, 18(3), 97-116.
-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5). *가족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가족정책팀.
- 은기수 (2001). 첫 출산부터 마지막 출산까지 출산기간의 차별성. *한국보건통계학회*, 26(1), 14-26.
- 이삼식, 정윤선, 김희경, 최은영, 박세경, 조남훈, 신인철, 도세록, 조숙경, 강주희 (2005).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서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 최효진, 오영희, 서문희, 박세경, 도세록 (2009).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사회연구원.
- 이성용 (2003). 남아 선호와 출산력간의 관계. *한국인구학*, 26(1), 31-57.
- 이정림, 최은영, 도남희, 송신영, 왕영희, 이에진 (2011). *한국아동패널 2010 기초분석보고서*.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이정림, 최은영, 도남희, 송신영, 왕영희, 정영혜 (2011). *한국아동패널 2011 사업보고서*.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이정원 (2009). 유자녀 취업여성의 후속출산의도 결정 경로 분석-가치관적 요인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0(1), 323-351.
- 이주리 (2011). 출산의도 및 부·모 양육참여와 영아 발달 간 관계. *인간발달연구*, 18(2), 43-57.
- 이학식, 임지훈 (2013). SPSS 20.0 매뉴얼. 서울: 집현재.
- 이형민 (2012). 후속출산계획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의 영아기 자녀를 둔 가구를 중심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 70, 1-31.
- 임현주, 이대균, 최항준 (2011). 부부특성, 출산 관련 정서, 어머니의 정서특성이 후속출산계획에 미치는 변인탐색-구조방정식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31(5), 183-202.
- 전나리, 조복희 (2012). 기혼남성의 추가 출산 계획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한국보육지원학회지*, 8(1), 125-143.
- 정은희, 최슬기, 김미선, 박은경, 정은영 (2012). *둘째자녀 출산제약 요인분석과 정책방안*.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차승은 (2008). 부모역할의 보상/비용과 둘째 자녀 출산계획. *사회복지정책*, 33, 111-134.
- 천혜정 (2005). 둘째 자녀 출산 희망에 대한 배우자간 차이와 이에 따른 집단간 특성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3), 25-33.
- 최은영, 이에진 (2011). 후속출산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판별분석. KICCE 국제세미나 및 제 2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 통계청 (2012). *인구동태통계연보*.
- 하준경 (2012). 저출산의 경제적 요인 분석: 소득불평등 및 교육비 부담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사회경제평론*, 39, 137-173.
- 헤럴드경제 (2011. 4. 28). 남아선호 옛말, 요즘 아빠는 딸바보. <http://nbiz.heraldcorp.com/view.php?ud=20110428000199>에서 2012년 10월 15일 인출.
- Bigner, J. J. (2007). 부모-자녀관계: 부모교육의

- 이해, 박성연, 성숙자, 김상희, 김지신, 박응임, 진춘애, 안지영, 임희수, 이사라, 한세영, 이주연(역). 경기: 교문사. (원본 발간년도, 2005).
- Chung, H. (2004). Application and revision of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for use of Korean couples. *Psychological Reports*, 95, 1015-1022.
- Hoffman, L. W., & Hoffman, M. L. (1973). The value of children to parents. In James T. Fawcett(Ed.),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population* (pp.19-76). New York: Basic Books.
- Kohler, H. P. (2001). Parity progression ratios with continued fertility postponement: Assessing the implications of delayed childbearing for fertility in Sweden, the Netherlands and Spain.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low fertility: Trends. *Theories and Policies*, Tokyo: Mauldin.
- Markman, H., Stanley, S., & Blumberg, S. (2001). *Fighting for your marriage positive steps for preventing divorce and preserving a lasting love, new & revised*. San Francisco, CA: Jossey-Bass Publishers.
- Mitchell, D., & Gray, E. (2007). Declining fertility: Intention, attitudes and aspiration. *Journal of Sociology*, 43(1), 23-44.
- OECD (2010). *Society at a glance 2011: OECD social indicators*. OECD.
- Peng, C., Lee, K., & Ingersoll, G. (2002). An introduction to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nd reporting.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96(1), 3-14.
- 1 차원고접수 : 2013. 04. 09.
수정원고접수 : 2013. 05. 18.
최종게재결정 : 2013. 06. 04.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Family Planning Decisions of Mothers who have 2 year old Children: Focusing on Parents' Values on Children and Characteristics of Couples

Jung, Younghye

Department of Child Welfare
Inha University

Kim, Hyeonju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Jung, Soh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factors affecting the decisions of mothers who have 2 year old children regarding future pregnancies. The analysis focused on parents' values on children and characteristics of couples. The data was gathered from 1,366 families that were selected by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PSKC) of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KICCE) in 2010(wave 3). To analyze the data, descriptive statistics, chi-square test, t-test, Pearson's correlation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SPSS 18.0. Major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birth order, sex of the panel children, father's emotional values on children and marital satisfaction affect the likelihood of future pregnancies. These results suggest that should be considered parents' values on children and marital relationships to determine planing of family. Furthermore, this study provides practical information helpful for overcoming Korea's low birth rate.

Key words : future pregnancies, parents' values on children, characteristics of couples, Panel of Study on Korean Children(PSKC)